

# 한·일(큐슈) 경제협력회의2025 개최결과 보고

## 1. 회의 개요

- 1) 목적 : 한·일(큐슈) 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
  - 한국과 일본 큐슈(九州)지역의 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·기술·인재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고,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
- 2) 테마 : ‘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,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 ~ 공통의 이익 창출·극대화’
- 3) 일시 : 2025.11.17.(월) ~ 21(금) \* 본회의 : 11.18(화)
- 4) 장소 : 대한민국 대전광역시
- 5) 참석자 : 한일 민간대표(韓 한일경제협회, 日 큐슈경제연합회) 등 총 82명
  - 한국측 : 산업통상부, 한일경제협회, 자치단체(부산·대전·광주·울산·세종), 부산경제진흥원, 부산연구원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, 한일산업·기술협력재단, 한남대학교, 기업(정정철연구소·대성하이텍) 등 60명
  - 일본측 :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(큐슈경제산업국, 큐슈경제연합회), 자치단체(사가현), 일본무역진흥기구, 글로벌제네레이션추진기구, 후쿠오카현일한친선협회, 기업(큐슈전력, 야마야커뮤니케이션즈) 등 22명

## 2. 주요 성과

- 한일 양국 新정권 출범 이후 APEC·G20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셔틀외교 지속에 합의하는 등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안정적인 한일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, 양국 지역경제 차원에서 공통의 이익을 창출 및 극대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
- 199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양국 민간대표에 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

## 가. 지역·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

### ○ 韓(한남대학교) 한일 공동성장을 위한 지산학 협력모델 제안

- 한남대학교와 큐슈지역 소재 대학교와의 한일 글로벌 프로젝트 소개 및 향후 양국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모델 제안

#### ① 기업, 대학, 지자체 간 지산학 글로벌 프로젝트 협력

- Cross-Cultural 커뮤니케이션 공동 강의 (나가사키대학)
-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(큐슈대학)
- 기업 : 애로기술 제공 및 산학 프로젝트 멘토링 지원  
지자체 : 우수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마련  
대학 : 지산학 글로벌 교육과정 공동운영

#### 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판로 모색

- 한-큐슈 간 시장진출 상담회 정례화
- 한-큐슈 창업기업 간 교류, 합작투자 촉진
- 공동전시, 로드쇼 등 개최

#### ③ 지역 산업분야 네트워킹 구축

- 한-큐슈 경제 클러스터 간 창업 및 기술이전 플랫폼 구축
- 바이오헬스포럼 등 정례 개최
- 공동 인턴십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

### ○ 日(글로벌제네레이션추진기구)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안

- 한일 경제교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

#### ① 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

- 학생간 교류와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
- 대구 영진전문대학-후쿠오카미용전문학교 / 오무라패션전문학교 등 쌍방향 연수 프로그램을 구축, 차세대를 담당할 젊은세대의 글로벌한 시야를 육성

#### ② 인력교류지원사업

- 인재와 기업 쌍방의 요구에 맞춘 매칭과 지속적인 F/U을 통해 진정한 국제 인재 교류를 실현

#### ③ 향후에도 한국-큐슈간 지속가능한 민간교류 필요

- 지속교류 추진, 사업지원 강화, 네트워크 확대 등

## ○ 韓(부산연구원) 부산-후쿠오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례 소개

- 부산의 기술창업 현황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개

### ① 부산-후쿠오카 스타트업 교류

- 2023년 9월 ‘플라이 아시아 2023’에서 창업도시 간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
- 플러그인 후쿠오카 사업 : 후쿠오카에 부산 스타트업 진출기회 마련, 후쿠오카 스타트업 지원센터 및 의대와 연계해 2026년 1월 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예정

### ② 부산-후쿠오카 스타트업 교류 확대 방향

- 정례적 교류프로그램 확대(공동 엑셀러레이팅, 컨설팅확대 등)
- 공동 축화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

## ○ 日(후쿠오카현 일한친선협회) 한국과의 교류사례 소개

- 후쿠오카현 일한친선협회 소개 및 현/시와 한국과의 교류 소개

### ① 후쿠오카현과 한국과의 교류

- 후쿠오카현 지사의 국립묘지 헌화, 국무총리 예방 등

### ② 후쿠오카시와 한국과의 교류

- 부산시-후쿠오카시 행정교류 체결 조인식 등

## 나. 기업 간 교류협력 사례

## ○ 韓(정정철연구소) VOCs(환경오염물질) 회수 및 재생 기술 소개

- 정정철연구소가 개발한 VOCs(환경오염물질) 회수 및 재생 기술을 소개하고 일본의 파트너 기업을 물색

① 정정철연구소에서는 VOCs를 회수한 후 재생하는 Bio Solvent Recovery System을 개발, 日 히타치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기업과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음

② 큐슈 지역은 과거 중화학공업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현재는 ‘깨끗한 관광지’ 이미지로 발전 중. 이러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본사에서 개발한 System을 적용할 파트너 기업을 찾고자 함

○ **日(야마야커뮤니케이션즈) 한국시장에서 큐슈 식품기업의 도전과, 공동 창조 전략 소개**

- ① 야마야 소개 및 한국진출과 프랜차이즈화 소개
  - 야마야, 하카타텐뿌라야마야 등
- ② 양국 지역의 식문화 연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
  - 민간·기업의 왕래와 공동창조를 심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공통이익은 늘어갈 것으로 예상

**다. 공동선언문 요약**

- 양국 민간기관 간 합의사항

- ① 지역·기관·기업 간 교류 촉진
  -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, 교류협력 및 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
  - 정보공유와 지역·기업 간 교류행사 참여 등을 통한 협력관계 증진에 협조
- ②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공동과제의 해결
  - 한·일(큐슈)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한일협력을 확대
  - 양국이 직면한 사회 분야 공동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
- ③ 인적교류 확대
  - 인적교류의 확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‘한일 양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’의 지속과 확대를 요망하고 진전을 기대

**3. 종합평가**

□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본회의에서 양국 지역·기관·기업 간 교류협력 사례를 소개함으로써, 양국 관계를 유지·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간 교류·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의미

- 한국-일본(큐슈) 간 신뢰관계 활용, 지속협력과 유대관계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

-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을 대표하는 민간기관 간 협력강화를 합의함으로써,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한 양 기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 4. 향후 후속조치 사항

- 차기회의는 2026년 10월, 한·일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와 동시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를 추진
  -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류 프로그램 발굴
  - 2026년 1월 큐슈 출장 및 업무협의를 통해 개최일정 확정 등
- 일본 큐슈경제연합회와 협력하여 제안사항 Follow-up 등 후속조치

발표자	내 용
<p>김운중 한남대학교 산업협력단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한남대-큐슈지역 대학간 글로벌 프로젝트 사례 소개 및 지산학 협력모델 제안</b></li> <li>○ 한남대는 전국 최초로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적용하였으며, 전국대학 취업순위 14위, 창업 순위 2위인 대학임.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 중이며, 일본 관동학원대학도 방문 교류한 바 있음</li> <li>○ 한남대는 대덕단지특구 내에 지산학협력 캠퍼스를 구축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에 협력 중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earch Up→Synergy Up→Scale Up의 3S 지원전략을 실시, 지투지바이오, 한남바이오 등 우수보육사례를 보유 중</li> </ul> </li> <li>○ 일본 큐슈지역과는 한일 글로벌 프로젝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2000년도부터 나가사키대학과의 공동연구</li> <li>② 2002년도부터 나가사키 카톨릭대학과 어학 및 컴퓨터공학의 공동연구 및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</li> <li>③ 2025년 큐슈대학과 산학연 탐방 및 협력 논의</li> </ul> </li> <li>○ 한일 공동성장을 위한 지산학 협력모델 제안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업, 대학, 지자체 간 지산학 글로벌 프로젝트 협력</li> <li>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판로 모색(상담회 정례화)</li> <li>③ 지역 산업분야 네트워킹 구축(포럼 정례 개최 등)</li> </ul> </li> </ul>
<p>야마시타 미에 &amp; 스즈키 시게유키 글로벌 제네레이션 추진기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한일 경제교류, 새로운 스테이지로의 제안 및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안</b></li> <li>○ (사)글로벌제네레이션추진기구(이하 GG)는 영진전문대학 및 부산마케팅고와의 협력, 한국인재의 일본기업 취업지원 실적 있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큐슈오타니단기대학, 큐슈산업대학, 오무라패션전문대학과의 한국연수 실시</li> <li>- 부산시 공식방문(5/20~22), 문화교류 프로그램 실시 등 부산과의 비즈니스 전개를 목표로 하는 15명이 참석한 연수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○ GG는 공통이익의 창출과 최대화를 테마로, 한국과의 교류와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,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 상담회 개최</li> </ul> </li> <li>○ 큐슈-한국은 지속가능한 민간교류가 필요하며, GG는 차세대로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</li> </ul>

발표자	내 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정철 정정철연구소 소장</p>	<p>□ <b>VOCs(환경오염물질) 회수 및 재생 기술 소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테이프, 가죽, 용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은 농도 및 종류가 다양각색이며, 처리방법도 다름. 국내에서는 RTO(축열식 소각 설비)를 주로 사용, 2차 환경오염을 유발</li> <li>○ 정정철연구소에서는 VOCs를 회수한 후 재생하는 Bio Solvent Recovery System을 개발, 日 히타치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기업과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음</li> <li>○ 큐슈지역은 과거 중화학공업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현재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로 발전 중. 이러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본사에서 개발한 System을 적용할 파트너 기업을 찾고자 함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허미영 (주)야마야 커뮤니케이션즈 해외사업본부장</p>	<p>□ <b>한국시장에서 큐슈 식품기업의 도전과 공동창조 전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야마야는 1974년 창업, 2024년도 매출 211억엔을 달성했으며 종업원 912명, 매운 명란 제조 및 일반식품 가공업 운영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명란은 한국에서 들어온 식품으로, 부산에 생산거점 有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에서는 2010년에 '한국에서 만나는 작은 후쿠오카'를 컨셉으로 프랜차이즈화(야마야, 하카타텐뿌라야마야, 이촌닭한마리 등) 지투지바이오, 한남바이오 등 우수보육사례를 보유 중</li> <li>○ 향후 양국 지역의 식문화 연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간·기업의 왕래와 공동창조를 심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공동이익은 늘어갈 것으로 예상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옥순 부산연구소 선임연구위원</p>	<p>□ <b>부산-후쿠오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산 기술창업은 2023년 기준 전국대비 중 3번째(5.2%)</li> <li>○ 부산-후쿠오카 스타트업 교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3년 9월 '플라이 아시아 2023'에서 창업도시 간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</li> <li>- 부산-후쿠오카간 대학 및 청년창업 분야에서 활발한 인적교류 실시</li> <li>- <b>플러그인 후쿠오카 사업</b> : 후쿠오카에 부산 스타트업 진출기회 마련, 후쿠오카 스타트업 지원센터 및 의대와 연계해 2026년 1월 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예정</li> </ul> </li> <li>○ <b>부산-후쿠오카 스타트업 교류 확대 방향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례적 교류프로그램 확대(공동 엑셀러레이팅, 컨설팅확대 등)</li> <li>② 공동 촉화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(바이오·헬스케어 특화 협력, 스마트시티 및 해양기술 협력 등)</li> <li>③ 투자·펀드 공동조성, 교류 네트워크 강화, 청년교류 확대 등</li> </ol> </li> </ul>

발표자	내 용
무라이 마사타카 후쿠오카현 일한친선협회 부회장	<p>□ 후쿠오카현 일한친선협회 소개 및 현/시와 한국과의 교류 소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후쿠오카현과 한국과의 교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쿠오카현 지사의 국립묘지 헌화, 국무총리 예방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후쿠오카시와 한국과의 교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산시-후쿠오카시 행정교류 체결 조인식 등</li> </ul> </li> </ul>



한·일(큐슈) 경제협력회의 2025  
Korea-Japan(Kyushu)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2025  
----- 2025. 11. 18 DAEJEON, KOREA -----



공 동 성 명

「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,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」

「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」와 「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」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, 한·일(큐슈) 경제협력회의 2025(이하 “본 회의”라고 한다)를 2025년 11월 18일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였다. 본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48명이, 일본 측에서는 이케베 카즈히로 큐슈경제연합회 회장 등 22명이 참가했다.

양 기관은 쌍방의 회원기업·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한일 경제교류·협력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, 1993년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한·일(큐슈) 간 무역규모가 약 4배 성장하는 등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.

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 해 개최된 본 회의에서는 ‘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,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’를 테마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, 더 넓고 더 깊은 한·일(큐슈)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.

- 다 음 -

1. 지역·기관·기업 간 교류 촉진

양 기관은 1993년부터 이어 온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, 쌍방의 회원기업·단체 간의 교류협력 및 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. 또한 양 기관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정보공유와 지역 및 기업 간 교류행사 참여 등을 통한 협력관계 증진에 적극 협조한다.

2.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공통과제의 해결

양 기관은 한·일(큐슈)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한일협력을 확대해 나간다. 특히 미래 산업(수소·AI) 협력 등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, 저출생 고령화, 지역 소멸위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 분야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.

3. 인적교류 확대

한일 양국의 왕래자 수는 작년 역대 최고인 1,200만명을 기록하였고, 올 해는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증가하는 등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 수준이다. 양 기관은 인적교류의 확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‘한일 양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’의 지속과 확대를 요망하고 진적을 기대한다.

2025년 11월 18일

한국측 민간대표 서 석 송  
일본측 민간대표 池辺 和弘